



#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질 관리 방안

김 혁 | 성균관대 교수처장

## I. 서론

대학교육의 본질을 논의하기 위해 '질(Quality)'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바탕에 있어서 훌륭하거나 우수하거나 만족스럽거나 한 정도'라고 되어 있다. 또한 Green(1994)에 의하면 '질'이란 용어는 '자유' 또는 '정의'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질이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어느 정도의 훌륭함과 우수함 그리고 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Astin(1991)은 대학의 질 구성 요인을 명성(reputation), 자원(resources), 산출(outcomes), 내용(contents)의 네 가지 면에서의 우수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서민원(1994)은 대학교육의 질을 교수당 학생 비율·교수 연구논문 편수·학생을 위한 수업시설 및 여건 등의 교육 여건의 질, 교수/학생 접촉·학습 시간·신속한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의 질, 학점·비판적 사고력·대학과 학문에 대한 태

도 등의 학생 성과의 질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현석(1996)은 대학의 질을 경영 논리에 입각하여 학생의 입학 성적과 교수의 연구 능력 등의 투입 요인,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요인, 학생의 취업률 및 연구 결과물 등의 산출 요인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의 질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밀하게 다루어져 Ferren & Slavings(2000)는 대학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학생의 만족도, 학습 참여, 교육과정의 조화 및 통일성 등을 나타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부터, 졸업율, 졸업생의 학문적 전문성, 취업률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 등으로 다양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학생의 노력, 수업 환경, 수업 행동, 교육과정의 조화 및 일치라는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한 대학의 질은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이 혼합된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학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은 언제부터인가 '연구'만이 대우받는 장(場)으로 변모하였다. 최근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연구 성과중심으로서의 편향적인 특성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유명 국제 학술지에 매년 여러 편의 논문을 실는 교수, 수백 억의 외부

“

대학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은 언제부터인가

'연구' 만이 대우받는 장(場)으로 변모하였다.

'연구' 만이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은 그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까?

”

연구비를 교내로 유치하는 교수, 정부·기업체·정책 또는 연구기관에 끊임없이 초청되어 연설과 자문을 제공하는 교수만이 캠퍼스 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연구를 중시하는 개별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연구 영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예로 우리 대학의 경우만 하여도 전임교수들의 SCI 게재 논문은 2000년에는 584편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728편으로, 지난 1년 동안 144편이 증가(25%의 증가율)함을 보였다. 실로 놀라울 만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연구' 만이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은 그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의 질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이 주장하는 '연구중심대학' 은 대학의 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대학의 질 관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어쩌면 가장 간단한 생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석우(1998)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시설 또는 장소적 의미의 대학은 중세의 '스투디움' 또는 '스투디움 제네랄레(studium generale)'란 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래시덜에 따르면 이 용어는 세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첫째는 단순히 특정한 나라나 지역으로부

터가 아니라 적어도 모든 지역으로부터 학생들을 끌어들이거나 청할 수 있는 학교이며, 둘째는 고등교육의 장소—적어도 고등학과(신학, 법학, 의학)가 가르쳐지는 곳이며, 셋째는 이런 과목들이 상당수의 사람에 의해 가르쳐지는 곳을 뜻한다고 한다(이석우, 1998). 즉, 대학은 다가올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리고 이끌어 가야 할 '인재를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대학은 교육기관이 주임무이지 연구기관이 주임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질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교육(education)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글은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대학의 질 관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II. 본론

대학이 인재 양성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들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논의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요건은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와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라 하겠다. 즉, 교수의 교수자(teacher)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교육과정이 대학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학의 질을 '가르침(teaching)'과 '교육과정'이란 두 가지 관점에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교수업적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 '교수(teaching) 활동'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지를 남겨 두지 못하였다. 교수의 재임용 또는 승진심사나 외부 연구 과제 수주의 우선 순위 등이 모두 교수의 연구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교수들은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곳으로서의 대학을 생각할 때 교수들의 역할은 바로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교수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가 교사, 학습자, 교육내용이라는 대원칙은 대학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들 삼자간의 상호작용의 질은 대학의 질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학생은 대학교육의 질이 구현되는 교육의 목표이며, 대상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은 '연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에서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경험의 질은 대학의 질과 무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경험의 핵심은 학문적 욕구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 결국 대학이 우수한 인재로 대변되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기하는가는 '질 관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가르침'의 범주에는 강의실에서의 강의를 포함해 실험실에서의 연구, 학부 또는 대학원생들의 상담 및 조언, 개인적인 학습지도, 학위 완성 또는 취업을 위한 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들이 가르치는 활동에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만이 대학을 효과적으로 질 관리하는 최선책이라 할 것이다.

Braskamp & Ory(1994)는 교수(teaching) 활동을 강의, 학생들을 위한 조언·감독·지도, 학습활동의 개발, 교수자로서의 자기 개발로 나누어 교수자로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강의(instructing)

- 강의실, 실험실, 임상실험실, 스튜디오 등에서 가르치는 것
- 워크숍, 세미나, MT 등의 학생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 채점, 학생들의 성적 관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계획 등을 관리 운영하는 것

#### 2) 학생들에 대한 조언, 감독, 지도

(advising, supervising, guiding and mentoring students)

- 실험실 또는 현장학습에서 학생들을 감독
- 학생들의 학업, 개인적 사정, 취업 등에 대한 조언 및 충고
- 교육조교의 지원 및 감독
- 인턴쉽 또는 현장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감독
- 개별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감독
- 연구 프로젝트,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 지도

#### 3) 학습활동의 개발

(developing learning activities)

- 수업의 개발, 검토 및 재구성
-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정
- 수업 기자재, 매뉴얼,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 학생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의 개발
-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학습 활동을 다양

〈표 1〉 교수(teaching)활동의 측정 방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개방형, 체크리스트</li> <li>•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인터뷰 .</li> <li>- 졸업하는 4학년 학생 또는 대학원생과의 인터뷰</li> <li>-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된 질 관리그룹(quality control circles)을 통한 인터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그룹과의 정규적인 만남을 통하여 수업에서 발견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li> </ul> </li> <li>• 관찰 및 비디오 촬영</li> <li>•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준거지향평가, 기준지향평가, 수행평가, 결과지향적인 평가 등</li> <li>• 수업관련 기록(records): 강의한 강좌 리스트, 강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의 등록 학생 수, 학생들의 학점 분포, 기여한 자문 활동, (논문)지도 활동, 수업계획서, 학생들에게 부여한 과제물, 시험 및 평가에 대한 자료, 교육조교를 지도한 자료 등</li> <li>• 수업관련 포트폴리오(course portfolio):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행자료집 — 여기에는 학생들의 활동과 결과에 관한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 자료와 학생들의 수행평가 기록,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li> <li>• 티칭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에서의 역할(강의자, 논문 지도자, 조연자 등)</li> <li>- 학생들의 학습목표와 교수자의 교수목표를 밝히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 또는 절차를 기록한 쪽 분량의 요약(교수자료에 대한 요약)</li> <li>- 학생, 동료, 교내 행정가들로부터 평가받은 최근 자료</li> <li>- 수업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자료(교육과정 개발, 다른 교수의 수업활동 지원, 자신의 수업활동에 대한 대외인지도 등)</li> <li>- 교수(teaching) 활동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및 강의활동에 대한 지원 금액 등</li> </ul> </li> </ul> | <p>이상과 같이 교수활동은 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교수활동은 활동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측정·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1〉은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질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p> |
|--|---|

※ 출처: Braskamp & Ory(1994)의 *Assessing Faculty Work*에서 발췌 및 요약

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4) 교수자로서의 자기 개발

(developing as a teacher)

- 동료들의 교수(teaching)활동 평가
- 강의 또는 수업을 위한 연구 실행
-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 참가
-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참가

“

학부제 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질 관리가 결국 대학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찾아져야 할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

## 2.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교육내용의 질 관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학부제하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사회 내부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첫째, 개별학과 교수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학문간의 융합을 기대하였던 학부제는 물리적으로 몇몇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묶어 외형적인 구조만 학부제의 틀을 유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학문간 융합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학부차원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학과간 갈등만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은 필수화해야 하며, 학부가 아닌 자신의 학과에 속한 학생이 있어야 하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대학에서 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의 학과중심적 사고는 학과간 협력으로 완성되어야 할 학부단위의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지연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최미리(2000)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한·미 대학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미국 대학들은 학과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고 전공 교육과정에 여러 학문분야를 포괄함으로써 폭넓은 학습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 대학들의 전공교육은 타학문분야와 교류가 적고 그 운영이 폐쇄적이며 세분화된 전공의 분야에서 심도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함으로써 처음에 학과가 아닌 학부로 소속되는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전공교수들의 미약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전임교수들의 무관심이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장희익과 그의 동료(1995)는 현재 그 어느 대학, 어느 부서에서도 교양교육에 대하여 사명감 또는 책임감을 지니지 않게 되어 버렸고, 설령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과 운영을 직접 맡겠다고 나서기도 어렵게 되어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탐색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교양교육은 미래의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학문후속세대의 주 실험무대로 이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과목명을 가진 강좌들이 강의자의 편의에 따라 수업내용과 평가방식에 따라 무분별하게 운영되거나, 고등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될 취미수준의 강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양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학문분야는 현대 사회가 선호하는 유망 또는 인기 직종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전공들로 인식되어 존립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학문 분야

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미래의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향한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전공만을 원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더군다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좌가 대학 캠퍼스 안에서 대체로 "not required, not interested, too much reading"이란 인식으로 인해 많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수업들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시점까지 이르렀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수과목'의 개념을 없애고 복수전공을 권장하기 위한 '최소전공이수학점'을 도입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전공 학문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질적 저하되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다. 유럽의 한 언어 전공 교수는 자신의 학과 학생들의 졸업할 때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와 숙달 정도가 학부제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있음을 원서 독해능력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학생선택권을 존중하는 학부제의 취지를 악용한 학생들이 수강하기 쉽고 좋은 학점을 받기 용이한 과목만을 이수할 수 있도록 느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을 일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언급한 문제들을 분석하면 알 수 있듯이 학부제 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질 관리가 결국 대학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교육과정개편을 통한 대학의 질 관리 방법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공 교육과정의 수준별·영역별 재구조화 우리나라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개별대학은 전공 교육과정을 수준별·학문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에게 고르게 들도록 함으로써 전공분야에 대한 심도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공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에 대해 전공기반영역에서 고르게 학습한 후, 자신의 학문적 선호에 따라 전공심화영역 중 한 track을 정하여 그 세부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표 2>에 나타난 UCLA의 철학 전공자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본교의 전공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야 할 방향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전공교육과정은 대단위 학부내 '전공 track'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형은 광역단위의 학부체제 내에 학과 수준의 '전공계열'을 두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전공 track으로 모듈화하여 전공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유현숙 외, 1999).

### 2) 기초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

Bell(1966)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모래시계의 외형과 같이 디자인되어 처음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풍부하게 탐구하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한 뒤, 최종적으로는 그 특수분야(전공)에 대한 지식을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양교육은 바로 그가 언급한 첫 번째 시점, 즉 다양한 학문을 풍부하게 탐구하는 영역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 3) 계열 또는 학부 내 학과간 교육과정(inter-major curriculum)의 개발

오늘날 대학교육은 세계적으로 대중 교육을 넘어서 보편 교육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대학 내에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례로 미

〈표 2〉 미국 UCLA의 철학과 전공 교육과정

- 철학을 전공하기 위한 최소 전공 이수과목 수 : 13 과목
  - Philosophy 기초 3강좌
    - History of Greek Philosophy.
    - Medieval and Early Modern Philosophy.
    -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1650 to 1800.
  - Group I ~ IV에서 7강좌 : 3영역에서 2강좌씩 & 나머지 한 영역에서 1강좌
    - Group I : History(20강좌),
    - Group II : Logic/Semantics(16강좌),
    - Group III : Ethics and Value Theory(10강좌),
    - Group IV : Metaphysics/Epistemology(15강좌)
  - 상급 또는 대학원 수준의 3강좌
    - 3 upper division/graduate philosophy courses.

국 대학들은 한국 대학들에 비해 타전공 이수범위가 넓고 그 이수 요구 과목수도 많은 것이 특징인데,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역사학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의 타전공에서 부가적으로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의 개별학과가 전공과목에 관한 한 자신의 학과 안에서 모든 전공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볼 때 미국의 전공 교육 목표는 전공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보편적인 지적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분되고 심화된 전공 지식을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과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전공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과간 벽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NU, 2001). Schneider(1996)는 배타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학

생들에게 분절된 학습(fragmented learning)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통합학습(integrated learning)을 제공해야만 함을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전공들 안에서의 통합학습(integrated learning within majors)을 제시하였다.

#### 4) 정규적인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

교육과정의 질은 대학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유지되고 향상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교수의 지적 특수성과 사회의 기대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해 교수들에 의해 협상되는 학습에 대한 의도적인 설계라고 정의하는 Toombs & Tierney(1995)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은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

지속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평가단위(강좌단위, 전공단위, 대학 교육과정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한 평가모형 개발이나 교육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도구 개발 역시 대학 질 관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 III. 결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명문 대학들과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분, 연구부분, 시설 설비부분, 행·재정부분 모두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그들 대학과 견주어 성장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다. 특히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립대학과 같이 대학으로 투입되는 재정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질향상 또는 질 관리를 해야 할지 적지 않은 갈등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하다.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재원을 투자하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은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일의 요건은 바로 '교수들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의'와 '완성도 높은 교육내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한 진리이다. 열의 있는 강의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는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 속에 곳곳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성인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4]

#### 〈참고문헌〉

- 서민원(1994). "대학교육의 효과성 개념과 측정: 모형탐색과 적용". 『고등교육연구』, 6(2). pp.97~136.
- 신현석(1996). "대학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정책모형의 개발과 전략의 탐색". 『고등교육연구』, 8(1). pp.227~244.
- 장희익 외(1995). 『교양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 유현숙 외(1999).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전공운영모형과 기초학문 육성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석우(1998).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 최미리(2000). "한미 주요 대학의 역사학, 경제학, 수학전공교육 비교연구". 『고등교육연구』,



- 11(2). pp.235~256.
- Astin, A. (1991). *Assessment for Excellence*. New York: Macmillan.
- Bell, D. (1966).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 The Columbia College Experience in its National Sett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askamp, L. A. & Ory, J. C.(1994). *Assessing Faculty Work*. San Francisco: Jossey - Bass, Inc.
- Ferren, A. S. & Slavings, R.(2000). *Investing in Quality: Tools for Improving Curricular Efficiency*. Washington, D.C.: AAC&U.
- Green, D.(1994). *What is Quality in Higher Education? Concepts, Policy, and Practice*. In Green, D.(Ed.), *What is Quality in Higher Education?* (pp.3~20). Bristol, PA:SRHE and Open University Press
- Schneider, C. G. (1996). *The Art and Sciences Major*. In Gaff, J.G., Ratcliff, J.M., & Associates(Ed.) *Handbook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pp. 235~261).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shers.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Eleva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 World - Class Research University. (Research Rep.)*. Seoul: SNU Press.
- Toombs, W. E. & Tierney, W. G. (1995). *Curriculum Definitions and Reference Points*. In Conrad, C. F., & Haworth, J. G. (Ed.), *Revisoning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pp.330~344). Needhan Heights, MA: Simon & Schuster Custom Publishing.

**김혁**

성균관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대(IU)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시내티대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로서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현대 회계정보시스템, 정부회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

